

오늘의 말씀묵상

본문 : 로마서 3:1-8(현대인의 성경)

1. 말씀(Bible verse)

- 1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 2 여러 모로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 3 그런데 만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디 가겠습니까?
- 4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거짓되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성경에도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 5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사람의 논리대로 말합니다.)
- 6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그런 분이시라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 7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드러나서 그분께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8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고 말했다면서 우리를 헐뜯고 다니는데 그들은 당연히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합니다.

2. 묵상(Observation)

-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나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 _____

-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 _____

3. 메시지(Message)

- 유대인들의 나은점은 무엇이라 말합니까?(1-2절)

→ _____

- 3-4절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 _____

- 불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5-6절)
→ _____
-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3-4절) 나의 신앙이 흔들릴 때는 언제 입니까? 나의 신앙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서로나누어 주세요.
→ _____
-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신실하심을 가장 크게 경험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 _____
-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는 태도는 어떤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나는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 수단을 합리화한 적은 없는지 나누어 주세요.
→ _____
-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과 책임감을 주고 있는가?
→ _____

4. 적용(Application)

-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는 무엇입니까?
→ _____
- 나의 불완전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_____

5. 묵상 나눔(아래 묵상 나눔은 함께하는교회 교인 한 분이 개인적으로 적은 묵상 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현재 묵상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참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롬 3:1-8 (하나님의 신실하심)

바울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부담스러운 말씀들은 외면하고, 자신들이 잘 지킬 수 있는 '제의법'에만 매달리면서 충성했다고 자부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됨을 입증하기 위해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과 일상의 삶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 중에 어떤 것이 쉬울까요? 주일 예배로 우리의 일상에서 범한 죄가 용서받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예배를 드린다고 6 일간의 우리의 모든 삶이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진짜 회개는 피해자가 동의할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예물을 드리다가도 원망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마 5:23-4)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책임을 회피하고 은혜를 거부하는 죄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형식적 율법주의, 왜곡된 선민의식,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6. 기도(Prayer)